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9~2015.3.15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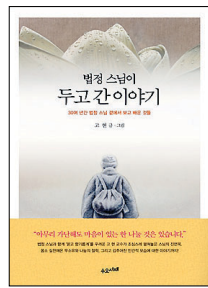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인	수오서재	6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2	실천(법정이문고성철이담하다)	성철	법정, 원택	책읽는섬	7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3	악사유리광찰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8	능엄경 대의풀이	남희근/송천문	마하연
4	법문스님의 행복 행복해지고 싶다면 길을 물어라	법륜	나무의마음	9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유희근/신경환/송	효림	
5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10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르젠버그의	나무를심는사람들	



“가난해도 마음 있는 한 나눌 것 있다”

법정 스님이 두고간 이야기

고현 글/그림 | 수오서재 펴냄 | 1만 4800원



이 책은 현대 불교미술 디자인 개척자로 평가받는 고현 교수가 30여 년간 법정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보며 ‘맑고 향기롭게’를 함께 만들고 꾸려온 추억들을 담은 것이다. 저자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스승의 존재감과 가르침을 전달할 때의 일기장 속에 숨겨놓은 추억들을 되살렸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1년 봄, 불일암에서 시작됐다. 고현 교수는 스님과의 인연으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를 만들었고 현재도 맑고 향기롭게 광주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책은 법정 스님이 몸소 실천한 무소유와 나눔 철학, 그리고 감춰진 인간적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생생한 일화로 담았다. “덕담 배움 경험자로서 기억나는 데까지 사실과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고현 교수는 일기처럼 메묘한 스님과의 이야기를 풀며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또한 법정 스님의 나무의자, 산새들의 목을 축여주는 돌물항, 대나무 숲길, 스님의 뒷모습 등 수년에 걸쳐 불일암을 찾았을 때마다 화폭에 옮긴 그림 작품들까지 이 책에 실었다. 이 책을 통해 고현 교수는 법정 스님의 본래 성품, 개인적 습관, 인간적 모습 등 가려져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한다.



언어 사용서 제동이 걸렸다. 당신 스스로 수십 년간 글을 써온 터라 무심코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셨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운운하면 무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 했다.

“자연이 언제 우리에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일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오만한 태도로 나오는 소립니다.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만이라도 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보존’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0여 년간 법정 스님과의 추억

일기처럼 메묘한 일화 담겨

한번은 모 지방서 행사명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하마터면 행사를 취소당할 뻔했다. ‘불우(不遇)’라는 단어의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느냐는 법정 스님의 면박이 날아왔다. 그 현수막과 각종 인쇄물, 어깨띠 등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고 ‘우리 이웃 서로 돕기 바자회’라고 고쳐 써야 했다.

저자는 “십이지 법정 스님은 자연생태환경 운운하는 단어도 ‘자연생명존중’으로 고쳐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일에 행여 결손 하신 걸로 짐작 평등대신에 교만 이상 풍족 자랑군림의 언행이 끼어들까 철저히 감시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언행일치, 필행일치, 덕행일치’ 등 말과 행동이, 글과 행동이, 덕을 행함이 일치하라는 스님의 말씀, 욕망을 좇지 말고 소망을 따르라는 말씀,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이 있다는 말씀, 자신의 빛깔로 내 인생을 살라

는 말씀... 등등. 법정 스님은 떠나셨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기처럼 메묘한 스님과의 이야기를 풀다 보니 책 한 권이 됐다는 고현 교수는 이 책 속에서 스님과의 첫 만남부터 임직할 때까지 아주 작은 에피소드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들을 소개했다. 번잡한 장소서 막무가내로 사인과 ‘한 말씀 부탁한다’는 한 여인에게 정말로 ‘한 말씀’이라는 글자만 적어준 모습, ‘맑고 향기롭게’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차에 타며 차가 없는 이들을 동승시키기 위해 ‘서대문! 신촌! 충무로!’ 등을 외칠 때 ‘영동고속도로, 강원도!’ ‘강원도 무료야! 없어?’ 하는 농담을 날리는 스님의 여유로운 모습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고현 교수 역시 이 책을 출간하며 “어쭙잖은 고백이 무소유와 나눔의 삶을 산 스님의 함자를 할까 걱정”이라며 원고를 퇴고하고도 출간까지 1년을 망설였다. 하지만 스님의 저서가 절판되고 스승의 존재감과 가르침이 희미해질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스님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으로 스님의 격려를 받으며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를 화두 삼아 한 평생 살아온 저자 자신의 인생을 자기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출간하도록 독려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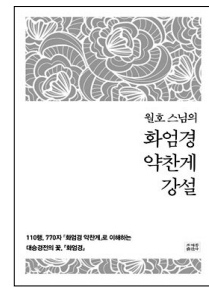
저자 고현 교수는?

1949년 전남 장흥서 출생한 저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아왔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고현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스승 법정에게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쓰고 그리며 이 책에 집대성했다.

“나의 현재는 과거 내가 만든 작품”

월호 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강설

월호 스님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월호 스님(사진)이 진행한 불교방송 <리셋! 밝고 둥글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화엄경 약찬게 강설’을 글로 엮은 것이다. 재미있는 법문으로 이름이 높은 분담게 월호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를 강설하며 글자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에 관련된 뒷이야기, 다른 경전 속 이야기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빗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소개한다.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하여 전체 110행을 세세히 풀어 주는 월호 스님 특유의 유쾌, 명쾌, 통쾌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스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 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며 대중을 교화하자, 함께 있던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불교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화엄경>은 어려운 내용, 그리고 방대한 분량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읽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준다면, <화엄경>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도 한 번쯤은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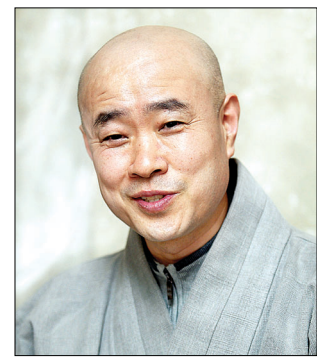
이 책은 월호 스님(사진)이 진행한 불교방송 <리셋! 밝고 둥글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화엄경 약찬게 강설’을 글로 엮은 것이다. 재미있는 법문으로 이름이 높은 분담게 월호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를 강설하며 글자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에 관련된 뒷이야기, 다른 경전 속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소개한다.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하여 전체 110행을 세세히 풀어 주는 월호 스님 특유의 유쾌, 명쾌, 통쾌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스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 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며 대중을 교화하자, 함께 있던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불교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화엄경>은 어려운 내용, 그리고 방대한 분량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읽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준다면, <화엄경>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도 한 번쯤은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화엄경 약찬게>는 용수 보살이 80권에 달하는 <화엄경>을 110자, 770행으로 압축

저자 특유의 유쾌한 언어로 설명

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빗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소개한다.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하여 전체 110행을 세세히 풀어 주는 월호 스님 특유의 유쾌, 명쾌, 통쾌한 설명은 독자들이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 <화엄경 약찬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스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장미는 장미 나뭇가지의 향과 아름다움이 있고, 들국화도 들국화 나뭇가지의 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꽃이 부처님의 꽃이다.” “죄를 지어 감방에 갇힌 사람이 감옥 생활에 대해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은 과거 내가 만든 작품의 결과이다.” “다른 이가 밥을 먹어 준다고 내 배가 부르지는 않은 것처럼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등등.

스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



어 있으며 그 자체로 불성을 갖고 있다.”는 <화엄경>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던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화엄 사상의 현실 긍정적인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월호 스님은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요즘 시대아말로 화엄 사상이 융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람 몸 받고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내 상황은 과거 내가 지은 복덕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복 닦기, 도 닦기에 더욱 집중한다면, 그리고 모든 존재 저마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개인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다만 한 생각, ‘내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 불성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부동한 성품을 바라보는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을 풀이켜보는 차원에 들어설 때, 바로 그 화엄의 절대 긍정과 무차별의 가르침에 들어선 자신을 느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조실 고산 큰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법 선원서 정진했으며,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현재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겸 서울 송파구 행복선원 원장으로 서,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전교실, 힐링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저서로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천수경 풀이 <아버키티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다.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자동연등승강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월등



정품LED전구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